

# 1950년대 조대신문에 발표한 ‘다형의 시’를 보다

### 다형기념사업회, ‘다형 김현승의 시간’ 출간

### ‘현대문학’ 200호에 실린 글 등 소개...제자와 일화도

다형 김현승(1913-1975) 시인은 한국현대시단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지성 시인이다. 선비정신과 지사적 안목으로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일궈낸 남도의 대표 문인이다.

알려진 대로 다형의 고향은 평양이다. 그러나 목회자였던 부친 김창국 목사가 광주 양립교회로 부임하면서 자연스레 김현승 또한 광주에 정착했다. 이후 다형은 조선대 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임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등 지역 문학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이번에 다형이 조선대에 재직할 무렵 ‘조대신문’ (1955년~1957년)에 발표했던 시와 산문을 비롯해 ‘현대문학’ 200호(1971년 8월호)를 맞아 발표한 글이 발굴, 소개돼 눈길을 끈다.

다형기념사업회(대표 백수인)가 최근 ‘다형 김현승의 시간’ (한림)을 펴냈다. 이번 책 발간은 우리 문학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광주의 대표 시인 다형을 기리고자 기획했다.

백수인 대표는 “그와 함께 동행했던 동료 문인들도, 그의 그림자 아래에서 시를 배우고 따르던 제자들도 점점 과거의 시간으로 저물어가고 있다”며 “더 저물기 전에 그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모아두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출간의 의미를 말했다.

이번 책에는 언급한 대로 김현승 시인이 조선대 문학과 교수로 재직할 무렵 ‘조대신문’에 발표했던 2편의 시와 4편의 산문이 수록돼 있다. 당시 조선대 문학과는 1946년 개교 이래 김기림이 ‘시론’과 ‘서양문예사조사’ 등의 과목을 강의했지만 그가 한국전쟁 중에 남북되면서 그 빈자리를 김현승이 이어가고 있었다. 1954년 9월 15일 창간한 ‘조대신문’은 당시 문학부장이던 극작가 장용건 교수가 관장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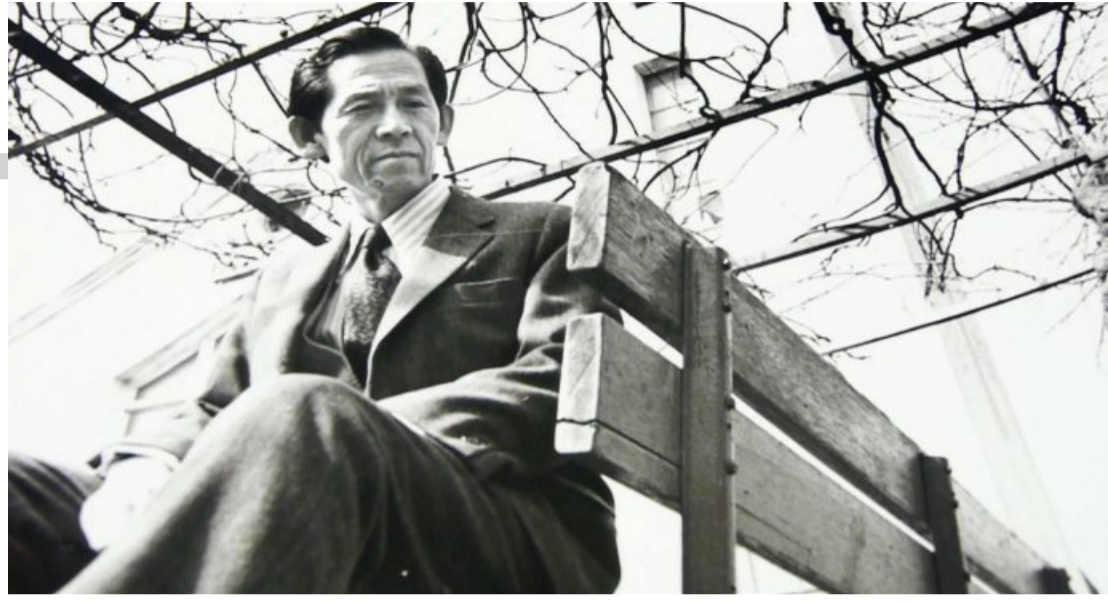
다형의 시 ‘希望’은 ‘조대신문’ 제3호(1955년 7월 1일자)에, ‘여름放學’은 제5호(1957년 3월 15일자)에 실렸다. 산문 ‘世態論’은 제4호(1955년 9월 1일자)에, ‘中世文學’은 제5호에 수록됐다.

시 ‘희망’은 추상적 관념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다형 연구자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다. 가장 최후에 엮은 ‘다형김현승전집’에도 누락된 작품으로 알려져 그 가치가 크다.

“希望, 너의 잔뼈가 자라는 땅은, / 언제나 거칠고 외로운 / 나의 마음 // 너를 세워 / 地表 위에 못 박으면, / 너는 어둠에 빛나는 나의 十字架 // 너를 깊이 / 陰府에 파 묻으면 / 너는 또한 純金처럼 더욱 芳醇하여 지더라...”

다형은 희망을 일컬어 “어둠에 빛나는 十字架”라고 노래한다. 비록 희망이 자라는 곳이 ‘거칠고 외로운 마음’이어도 언젠가는 순금처럼 향기롭고 빛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책에는 ‘현대문학’ 200호에 다형이 창간호부터의 인연을 소개한 글도 수록돼 있다. “15,6년 전인 그때 나는 아직 광주에 있었는데 ‘현대문학’ 창간호에 실릴 시 청탁서가 왔다. ‘현대문학’이라는 새로운 문예지가 출현한다는 사실만도 문인으로서의 반가운 일인데, 창간호에 더군다나 사표에서 원고청탁서를 받았으니 아니 기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조선대 재직 시절 다형 김현승 시인은 손광은 시인 등 많은 후학들을 양성했다.

다형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작품 ‘견고(堅固)한 고독’에 대해서도 말한다. 역시 ‘현대문학’에 발표했던 작품이다. “내가 쓴 가작(佳作)을 말할 때 대개는 ‘눈물’이나 ‘플라타너스’를 말하지만 나 자신은 ‘견고(堅固)한 고독’을 가장 아낀다.”

이번 ‘다형 김현승의 시간’에는 김현승 시인의 제자인 손광은·진현성·이은봉 시인을 비롯해 문순태 소설가 등이 스승과의 인연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김포천 희곡작가는 서울 MBC, TV에 재직하던 시절 다형 선생과 커피를 마시며 나눴던 이야기를 양림동 지킴이 한희원미술관장인 한희원 시인(화가)은 양림동과 김현승 시인에 대한 다양한 인연을 회고한 글을 실었다.

광주예총 임원식 회장(시인)은 ‘다형 김현승의 생애와 문학’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김현승은 우리나라 현대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큰 시인”이라며 “앞으로 다형에 대한 높은 평가에 걸맞은 현장 사업이 더욱 격조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바다 위 나무 가족 이야기’

### 김석은 사진전, 6월5일까지 드영미술관



‘나의 행성의 아침’

‘사진으로 만나는 신비한 나무의 세계.’ 김석은 사진작가 개인전이 오는 6월5일까지 광주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에서 열린다.

‘바다 위 나무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충남 아산에서 시작해 울산, 광주, 전주, 진주, 서울로 이어지는 순회전이다.

김 작가는 지난 2020년 프랑스에서 열린 ‘2020 PX3 사진 콘테스트’에 ‘바다 나무 가족 이야기’ 시리즈를 출품, 스페셜 분야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이 콘테스트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진상 중 하나로, 98개국에서 57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대회이기도 하다.

김 작가가 앵글에 포착한 소재는 바다에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맹그로브 나무다. 강인한 생존력이 마음을 뺏긴 김 작가는 맹그로브 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인도네시아 술바섬을 수차례 방문, 사진을 찍어왔다. 이 시리즈는 인도네시아 바다 위의 한 뿌리로 이뤄진 나무를 사람으로 의인화해 가족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초현실적인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 속의 나무가 사람처럼 포옹을 할 수 없지만, 폭풍이 불어오더라도 뿌리로 지탱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에 재발견하게 된 가족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슬라브의 전설’

###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 31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우수어린 슬라브 음악 속으로.’

광주여성필하모니오케스트라(대표 김유정·이하 광주여성필) 제 61회 정기연주회 ‘슬라브의 전설’이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공연에서는 체코 출신 작곡가 드보르작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한 보로딘의 음악을 연주한다. 동유럽 정서를 보여주는 슬라브 음악은 애조된 선율과 춤곡 느낌의 선율 등이 우리 정서와 맞아 특히 인기가 높다.

연주곡의 시작은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살카’의 대표 아리아 ‘달에 부치는 노래’가 장식한다. 이어

낭만적인 선율과 큰 스케일로 클래식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을 서 울대 기악과 교수로 재직중인 첼리스트 김민지와 협연한다.

피날레 곡은 보로딘 ‘교향곡 2번’이다. 화학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보로딘의 대표작인 ‘교향곡 2번’은 러시아 정서를 잘 나타낸 곡으로 평가받는 작품이다.

지휘와 해설은 현재 양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 K아트 예술감독으로 활동중인 박승유가 맡는다.

광주여성필 다음 공연은 오는 9월 예정된 ‘Suite’ 공연으로 정현 지휘자를 초청, 홀스트와



김민지

박승유

시베리우스, 루터, 닐슨의 명곡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광주여성체임버앙상블’에서 출발한 광주여성필은 1999년 5월 창단한 이후 지금까지 500회가 넘는 공연을 진행했다. 전석 초대. 문의 010-3625-5115.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국 호랑이 ‘질주’

### 오동섭 개인전,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 6월 2~6일 서울 코엑스

2022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50여년간 호랑이를 그려온 송은(松隱) 오동섭 작가는 올해 다양한 호랑이 그림으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올 초 ‘한국 호랑이 6000년의 흔적’을 주제로 은암미술관에서 세화전을 열었던 오 작가는 오는 2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한국 호랑이 그 위용전 II’를 개최한다. 지난 2001년 열었던 ‘한국 호랑이 그 위용전 I’에 이은 개인전으로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서울 코엑스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그의 작품 속, 정면을 응시하는 호랑이의 표정이 생생히 살아 있다. 포효하는 호랑이의 위세에 압도감을 느낀다. 세필로 그려낸 털은 한가닥 한가닥 움직이는 듯 하고, 질주하는 듯한 움직임도 느껴진다. 호랑이의 야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 한편으로 아기 호랑이를 감싸안은 자애로운 모습도 보인다.

세밀한 표정, 몸의 움직임, 털 빛깔 하나까지 담긴 호랑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는 서울대공원을 비롯해 과천, 대전, 우치 동물원 등을 수없이 방문, 호랑이들을 관찰했다.

호랑이의 강인한 모습을 담은 ‘질주’, ‘포효’, ‘여명’ 시리즈 등을 선보여온 오 작가는 이번 전시



‘설중모자’

에서 호랑이 여러 마리가 뛰쳐 나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신작 ‘질주’를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모자애정’, ‘설중모자’ 등 호랑이의 자애로운 모습이 담긴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소리 오브젝트를 위한 구성’

### GMAP, ‘디지털 공명’전 연계

### 28일 고휘 작가 초청 라이브공연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GMAP(지맵·Gwangju Media Art Platform)이 개관전 ‘디지털 공명’과 연계한 행사를 개최한다.

GMAP 제4전시실은 18대의 프로젝션을 4면에 투사, 몰입형 전시를 구현하고 있는 공간으로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작품을 한 달 간격으로 선보이는 중이다.

오는 28일부터 6월29일까지는 알고리즘을 통해 공간과 소리, 그리고 이미지를 연결하는 인터랙티브 연주 작품인 고휘 작가의 ‘소리 오브젝트를 위한 구성’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미술관은 전시 첫날인 28일(오후 3시~5시 사이) 고휘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오디오-비주얼 라이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휘 작 ‘소리 오브젝트를 위한 구성’

공연은 그래픽 기호로 변환된 사운드 오브젝트를 작가가 임의로 선택하고, 그 사운드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전시로 연출될 ‘소리 오브젝트를 위한 구성’을 작가와 함께 경험하는 기회인 셈이다.

고휘 작가는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소리를 채집, 감각 간의 연결성을 자신의 관점으로 구성하고 있다. 주로 현실의 자연 현상들을 모방, 가상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풍경을 만들어내며 소리를 감각하는 과정의 실험을 통해 개인, 사회, 자연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